

농업·농촌 6차 산업화의 이해와 사례1)

- 일본의 논의와 전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황 영 모 / hmlsm@gmail.com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1. 머리말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가 제시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는 도농교류와 같이 인적·물적 자원이 농업·농촌으로 유입(흐름)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융·복합화를 통한 이익(가치)의 창출을 강조한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에 대한 논의와 이를 위한 실천을 지속해 오고 있다. 우리도 유사한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²⁾ 되고 있으며,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분명 6차 산업화는 그동안 정체되거나 축소되어 온 농업·농촌의 영역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농업의 소득창출과 농촌지역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략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6차 산업화는 현재 농업·농촌이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실천전략은 아니다. 이미 6차 산업화 논리와 유사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현실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해결되기 보다 더욱 심화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몇몇의 성공사례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현재의 여건에 과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 생산자가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더욱더 세분화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내다 팔아야 한다는 요청은 생산·판매 과정의 부가가치를 취하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경제활동의 융·복합화는 농업 생산자를 원료 공급자 혹은 농업 노동자로 고착화할 수 있다.

1) 이 글은 농정연구센터 연례 심포지엄 ‘농촌지역 활성화의 길(2011. 11. 25)’ 주제발표 자료임을 밝힙니다.

2)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2010. 7)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6차 산업화는 이론적 근거에 바탕하기 보다 일본의 실천사례에서 제출된 개념적 성격의 조어(造語)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 활성화 사례를 6차 산업화의 관점에서 소개·분석하여 6차 산업화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차 산업화 개념을 제창하고 정책화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6차 산업화의 개념과 방향, 과제를 먼저 정리한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사례를 6차 산업화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2. 6차 산업화의 이해 - 일본 논의를 중심으로

(1) 6차 산업화의 개념³⁾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개념⁴⁾이 제시된 것은 1994년 今村奈良臣⁵⁾에 의해서이다. 그는 당시 지역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에 전력을 다하자’고 주장하였다.

今村奈良臣가 제시한 6차 산업의 개념은 大分縣 大山町농협의 사업 및 활동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에 근거를 하고 있다. 大山町농협은 ‘매실과 밤을 심어 하와이에 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기초로 1961년 시작된 1차 NPC 운동을 통해 가난한 산촌지역 부흥을 위해 과수농업과 새로운 ‘고차원 농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조합원의 농가소득향상의 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농민에 의한 노천시장’인 ‘코노하나가르텐(木の花ガルテン)’의 전개 등 새로운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농업의 6차 산업화가 공식화된 것은 1998년인데, 그는 ‘1차+2차+3차=6차’라는 덧셈으로는 불충분하여 곱셈에 의한 6차 산업을 강조했다.

3) 6차 산업화의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일본의 논의 과정을 정리·제시하여 우리의 6차 산업화의 파악과 이해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吉田成雄(2010)을 참조.

4) 국민소득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다시 3차 산업으로 갈수록 증대되어, 그 결과 산업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페티-클라크의 법칙을 활용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今村奈良臣(2010)을 참조.

5) 현재 JA總合研究所 소장, 東京大学 명예교수

6) 1차 NPC 운동(New Plum and Chestnuts)이어 1965년부터 시작된 2차 NPC 운동은 소득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만들기(Neo Personality Combination)되었고, 1969년부터 시작된 3차 NPC 운동은 농촌의 파라다이스라는 생활권 운동으로 확산(New Paradise Community)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大分大山町농협(www.oyama-nk.com) 참조.

今村奈良臣(1998)는 '지역에 활력을 만들어내는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이유를 2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농업과 농촌이 후퇴한 상황에서는 $0 \times 2 \times 3 = 0$ 이 되어 6차 산업의 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6차 산업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산업을 단순히 모은(덧셈) 것으로는 부족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결합(곱셈)이 되지 않으면 안 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생산만을 담당해 왔는데 농산물과 식품가공(2차 산업)은 식품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농업·농촌에 관계된 정보·서비스·관광 등(3차 산업)은 대부분 도소매업·서비스업·관광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농업분야로 되찾아 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타 산업분야가 흡수하는 부가가치를 농업분야로 되돌리자는 당초의 6차 산업화 논리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제가 고착화되어 경제의 파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논리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小田切徳美(2010)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今村奈良臣가 제기한 농업을 둘러싼 가치를 '농업으로 되찾기'의 가능액이 감소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농업의 6차 산업화는 가공품의 제조·판매에 그치지 않고 관광·정보서비스, 농가 레스토랑 등 지역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파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즉,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되찾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적극적인 혁신(innovation)에 의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小田切徳美의 접근과 맥을 같이하여 최근에는 농업의 활동영역을 생산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산업(가공·유통·외식)과 다양하게 결합된 가운데 이른바 관광·교육·교류의 비즈니스와 관계를 깊게 하면서 스스로 활로를 개척하는 유형의 산업으로 파악하고 있다(生源寺眞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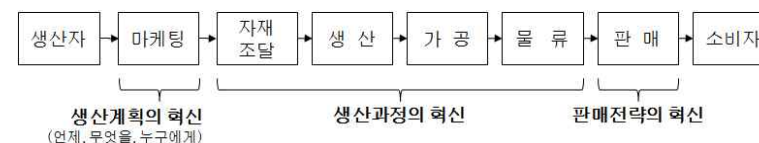
이와 같은 농업경영 영역의 재 정의는 정책의 변화에 반영되어 '식품산업 클러스터(2005년)' 정책을 통해 지역의 식품산업이 중심이 되어 농업과 관련 산업의 연계에 의한 신상품 개발 및 판로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농상공 연계 촉진법'이, 2010년에는 '6차 산업화법'이 제정되었다(표 1 참조).

(2) 6차 산업화의 내용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생산자가 식료의 공급사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생산자 소득의 향상을 달성하는 '생산자發 가치사슬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계획(상품전략)의 혁신, 생산과정의 혁신, 판매전략 혁신이 강조된다. 또한 규모화, 상품개발, 판로확대 등에 의한 경영의 복합화와 이업종(異業種)과의 연계 또는 일체화 등이 주요전략으로 제시된다.

〈그림 1〉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공급사슬 단계의 혁신과정



* 자료 : 農林水産省, 2011.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천하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농림업자의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일체화한 소득증대 방안인데, 농업경영의 다각화와 복합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⁷⁾. 둘째는 2차·3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비즈니스와 신산업의 창출이다⁸⁾. 농상공 연계 등의 추진이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제안된다.

〈표 1〉 일본 농산촌 6차 산업화와 농상공 연계 정책의 비교

구 분	농산어촌 6차 산업화	농상공 연계
목 적	지역자원 활용, 고용확보, 소득향상	농상공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개 념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	상류(농림수산업)→하류(상공업)
근 거	6차 산업화법	농상공 연계 촉진법
시 기	2010. 12 공포	2008. 5 공포
부 처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지 원	무이자, 보조금 지원 등	저리융자, 세제우대조치 등

그러나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상공 연계와 그 지향이 분명히 다르다. 농상공 연계는 중소기업의 경영향상을 목적으로 6차 산업화를 의식한 정책 수단인데 비해, 6차 산업화는 지역자원 활용한 농업자의 새로운 사업 창출 및 지역 농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차 산업화와 대별하여 농상공 연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7) 이를 수직적인 6차 산업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로 개별 농업경영과 농가그룹의 다각적인 경영 전개가 해당된다.

8) 이를 수평적 6차 산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농업생산자, 협동조합, 지역의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매점 등이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이다. 활성화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농상공 연계의 많은 사례는 단순히 일정한 범위 내에서 농업 생산자와 가공산업, 유통업,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의 상품유통을 통해 연결되는 수준의 사례가 많다⁹⁾. 그러나 이들 사례는 농업 생산자의 역할이 단순히 상품의 원료 공급자 형태를 뛰어 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른바 2차·3차 산업(하류)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부문의 계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바로 이 점이 식품기업과 유통기업의 농업 참가가 지역농업과 과연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小林元(2009)는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촌지역의 활성화 정책이며 보다 실천적인 농촌활동의 지역 만들기라고 강조한다. 반면 농상공 연계는 일방적으로 농업이 타 산업과 연계를 맺으면서 경영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법인화와 농업분야에의 기업참가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지역의 기간 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치를 명확히 하면서 농업 생산자로부터 출발하는 ‘지역적 관점’에 있다는 그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6차 산업화의 과제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다음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활성화론의 관점에서의 파악이다. 이는 ‘농촌 복합화’ 논의¹⁰⁾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농촌 복합화는 농업을 핵심으로 지역 내의 다른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한 지역농업의 영역 확대에 의한 산업 복합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지역 유통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지역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매니지먼트를 강조한다. 今村奈良臣은 이러한 관점에서 6차 산업화를 제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6차 산업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푸드시스템론적 관점**에서의 이해이다. 지역 만들기 혹은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6차 산업화는 식품산업의 시장구조와 행동 등에 대응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농업·농촌 활성화 중심의 논조와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 농산물 가공이 이른바 국가 브랜드 식품과 비교하여 얼마나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지역농업 차원의 영세한 농산가공 주체가 대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각 주체 간

의 연계와 사회자본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6차 산업화의 전개와 실행의 단계에서 3차 부문에서의 농산물 직매시설, 도농교류, 지산지소 등 구체적인 형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산업관련론의 관점**에서 6차 산업화를 파악하는 경향이 다.

이렇게 볼 때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는 산업화와 과정에서 나타난 지나친 사회적 분업¹¹⁾을 수정하여 농업·농촌에 경제적 활력과 성과를 되찾고자 하는 실천적 운동(지역활성화론적 접근)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농업·농촌 부문이 주도하여 지역 내의 새로운 질서로서의 사회적 분업을 창출하고 그 가치를 농업·농촌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대응(산업연관론적 접근)이다. 아울러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단위 식품체계와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갖춰가기 위한 시도(푸드시스템론적 접근)이기도 하다.

대기업 등의 자본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은 농업·농촌의 입장에서는 ‘발전없는 성장’이 되고 있다. 개발이익이 가능한 지역으로 환원되어 가치의 재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채투자된다면, 새로운 지역사회의 체계가 만들어져 일자리는 물론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의 주도가 아닌 외부 기업에 의한 개발은 지역주민을 단순한 저임금 노동자 혹은 파트타임으로 만드는 것이상이 아닐 수 있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본질적인 발전을 가르는 기준은 지역이 주도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재분배되어 그것을 자본으로 한 지역 순환적인 경제활동의 구조가 지역 내부에 구축되는 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농촌 부문이 그 잠재력에 기반해 새로운 가능성을 바탕으로 생산부터 가공과 판매까지 담당하고 그 이익을 채투자하는 이른바 ‘상류(농업)로부터의 계열화’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유통중과의 연계를 취해 하류(2차·3차)에 의해 계열화되는 농상공 연계와 다른 점이다. 바로 이점이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농촌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6차 산업화를 실천하는 가운데 견지해야 할 과제이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창출을 위한 ‘혁신(innovation)’이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가, 그 주체가 어떻게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가, 발생하는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바탕이 농외자본, 지역의 자본을 농업·농촌부문의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주도권(initiative)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제 주체가 ‘함께 연계하고 연대하여 계열화되고 하청화 되지 않는 지

9) 이에 대해서는 經濟産業省(2010)을 참조.

10) 이에 대해서는 高橋正郎(1985)를 참조.

11)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아래의 국제적인 경쟁구도에 농업·농촌이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横平龍宏, 2011).

3. 6차 산업화 실천 사례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1) 6차 산업화의 유형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지역농업¹²⁾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산업화를 둘러싼 이해는 농산가공과 판매라는 산업중심 관점에서의 편중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접근과 실천 사례의 현실을 감안할 때, 6차 산업화를 파악하는 관점을 크게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경제 모델'로 대별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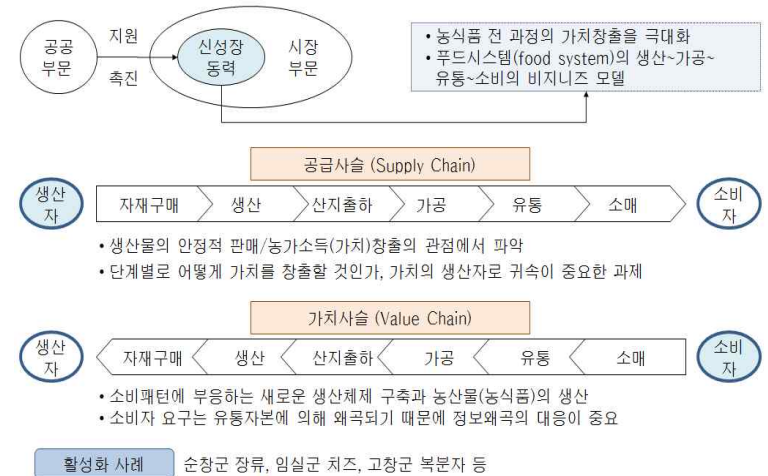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적 관점에서 6차 산업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장영역에서 농업부문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강조한다. 주로 전통적인 농식품의 공급사슬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표적 사례로 순창군의 장류, 임실군의 치즈, 고창군의 복분자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경우 특정 품목의 가공과 판매를 중심으로 한 생산체계의 개편과 상품화 전략이 강조되는 양상을 띤다.

이에 비해 사회적 경제 모델은 지역적 관점에서 6차 산업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에 걸쳐 실천되고 있다. 주로 대안적 생산관계, 분배를 통한 경제적 이해, 공동체 의식 공유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완주군의 건강한 밥상, 임실군의 치즈마을 등을 들 수 있는데, 마을이 기본 활동단위가 되어 주민 참여형 지역 만들기 전략을 취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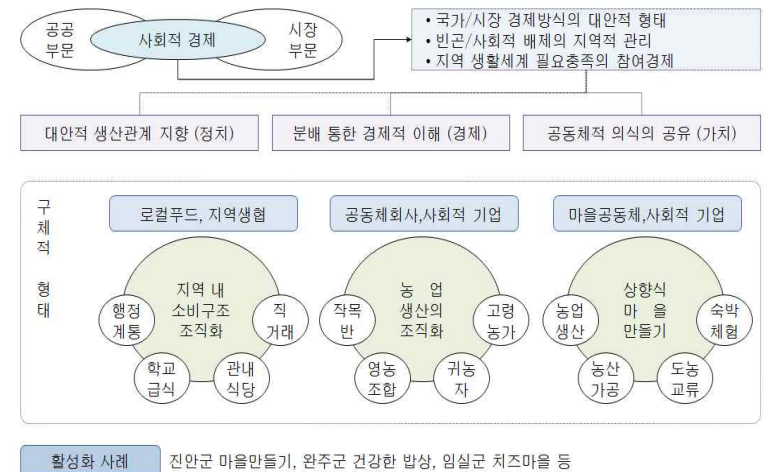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유형 구분은 임의적 구분에 지나지 않으며, 실천의 장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하면서도 사업적인 성과를 내는 활동이 모두 요구된다. 또한 실천과정을 통해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지역 브랜드'로 확립하고, 그 이미지를 관련 활동과 연계하여 영역을 넓혀가는 점은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12) 지역농업은 일정지역에서 대다수의 농가가 일정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개별경영 조건의 차이를 협조적·집단적·조직적인 관계를 통해 보완하면서 개별 농업경영을 해나가는 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는 탄력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결국 지역농업의 추진은 지역농업 조직화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황영모(2011)를 참조.

<그림 2>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6차 산업화



<그림 3> 사회적 경제 모델로서의 6차 산업화



(2) 마을 단위 사례

1) 진안군 ‘와룡마을’

와룡마을은 용담댐 수몰의 아픔을 딛고 농산물 가공, 판매, 도농교류·체험 등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마을을 활성화시켜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99가구가 농사를 짓던 마을은 1995년 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이 도시로 흩어졌다. 타 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운 10여 가구만 남아서 현재의 위치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러나 쓸만한 농지는 모두 수몰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리더(강주현)는 산촌특성에 맞게 약초재배를 통한 활로를 모색했다. 진안군의 자체적인 마을사업을 매개로 마을 주민 공동의 활동을 벌여 나갔다. 약초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산초와 홍삼 등으로 가공하여 팔기 시작했다. 가공시설은 마을 현실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지원을 받아 지었고, 전 주민이 참여하여 ‘좋은 동네’라는 마을 법인을 설립했다.

와룡마을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마을에서 가공하여 판매한다는 이른바 ‘지산지공(地産地工)’의 전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마을법인인 좋은 동네가 전량 수매한다. 수매된 농산물은 가공시설을 통해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하여 판매되고 있다. 이로써 마을 주민은 안정적 농산물의 판매망을 확보하게 되었다¹³⁾.

그동안 와룡마을은 마을의 다품목 소량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가공품을 개발해 왔다. 3개 품목, 14종에 달하는 농산 가공품(2010년)을 만들고 있는데, 단순한 농산가공 식품을 뛰어 넘어 지속적인 생활식품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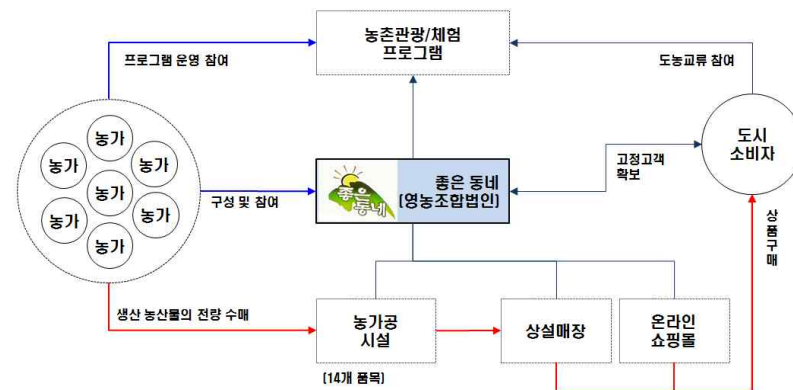
특히 다양한 판매전략을 통해 농특산물의 안정적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별도의 직거래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쇼룸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연간 매출액만 8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도농교류 활동으로 고정고객 확보에 중점을 두어, 한번 방문한 도시민의 재방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방문객 8천여명(2010년) 중 고정 방문객이 1,400여명이나 된다.

진안군 와룡마을은 마을이 중심이 되어 계약재배-농산가공-도농교류-직거래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지역 내부로 순환되는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

13) 가공품 수요가 늘자 인근 마을까지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가격은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마을사업의 목적이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에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림 4〉 진안군 와룡마을 6차 산업화 실천 모형



2) 임실군 ‘치즈마을’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손꼽히는 치즈마을은 변변한 자원이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치즈가공, 도농교류 등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실천하는 마을이다.

치즈마을은 74가구(183명)가 사는 논농업 중심의 농촌마을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치즈가 만들어진 지역(지정환 신부, 1967년)이기도 하다. 치즈마을은 1980년대 들어 친환경 농업과 나눔의 생활에 대한 공동체 마을을 지향하고 생산조직화를 실험해 나갔다¹⁴⁾.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구성원 간의 갈등 등으로 번번히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던 중 2003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철학 있는 마을리더(이진하, 조기현)는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마을이 가진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가공, 판매,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치즈마을은 마을 운영위원회(영농조합법인)를 중심으로 개별 주민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도농교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즈체험장, 농특산물 직매장, 숙박, 식당 등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된다. 또 농가 개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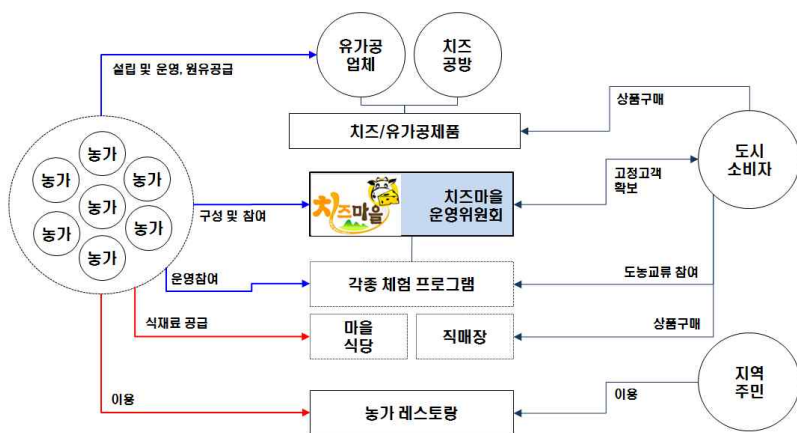
14) 1983년 친환경 농업을 시작으로 1987년 ‘예가원 공동체’, 1991년 ‘바른농사실천농민회’,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을 시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황영모(2010)을 참조.

경운기, 초지낙농, 산양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농가레스토랑, 피자체험장, 치즈 아카데미 등도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가가 설립하여 운영되는 유가공 공장과 치즈공방은 치즈마을만의 특징이다.

치즈마을의 다양한 사업은 연간 6만명이 찾는 성과로 이어지고 주민의 소득으로 귀결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되는데 기여율에 따라 매출액의 상당액이 참여 주민에게 분배된다. 연간 매출액이 15억원에 달하는데, 매출액의 62.5%가 88명의 주민에게 분배되고 있다(2010년). 또한 사업을 통한 수익의 일부는 마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어린이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마을경관조성기금, 인재육성장학기금, 지역사회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이 조성되었다.

치즈마을은 오랜 생산의 조직화에 기반한 내적 역량이 마을 만들기(도농교류)의 성과로 나타나고, 생산, 가공, 농가레스토랑, 체험 등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 임실군 치즈마을 6차 산업화 실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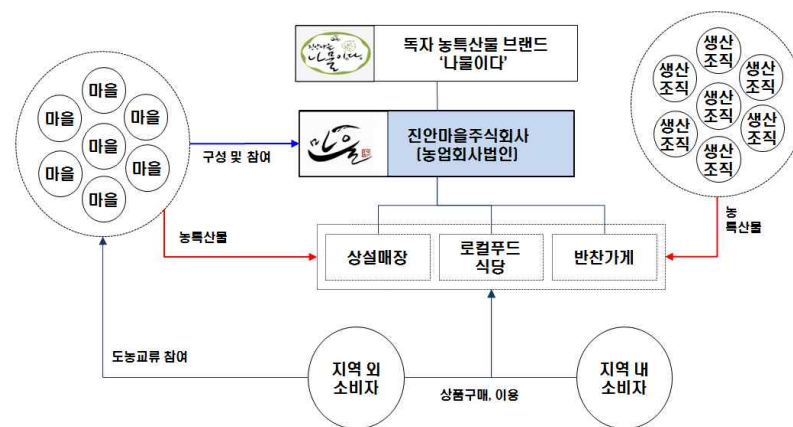


(3) 시·군 단위 사례

1) 진안군 '진안마을주식회사'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10여년에 걸친 군 차원의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마을단위 농특산물의 판매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6차 산업화 실천의 군단위 주체이다

<그림 6> 진안군 진안마을 주식회사 6차 산업화 실천 모형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진안군의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¹⁵⁾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이 참여한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어온 금요장터(91회) 등의 결과로 2011년 탄생하였다. 마을 및 단체 등 47명이 참여하여 자본금 1억원을 조성하여 마을회사를 세웠다.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친환경 농업, 농가공 등의 상품을 개발하고 도농교류 및 직거래 유통 등의 6차 산업화를 담당하는 군 차원의 주체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 및 관계 기관·단체간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 실천형태로 로컬푸드 상설매장 활성화와 독자 브랜드 상품개발로 영세농가의 소득향상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진안마을 주식회사가 6차 산업화 방안으로 실천하는 전략은 '생산의 조직화, 소비의 조직화, 상품화' 등이다. 생산자 조직화는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 지역 내 생산자 조직(법인·단체)이 생산하는 농특산물 구매로 실천하고 있다. 소비자 조직화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한 진안군 지역 내 소비자 조직화와 도농교류·마을축제 등의 고정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상품화를 위해 마을출하 제철상품 및 독자 브랜드(나물이다)를 개발하고 지역 내 특산물 연계하여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환원이라는 공공성과 함께 최

15) 진안군 차원의 주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린빌리지(주민 주도 마을경관 개선 사업), 으뜸마을가꾸기(학습과 토론을 통한 성과모델 창출) 등을 들 수 있으며,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구자인 외(2010)을 참조.

대 수익의 확보라는 수익성의 조화를 이뤄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경영체로 파악할 수 있다.

2)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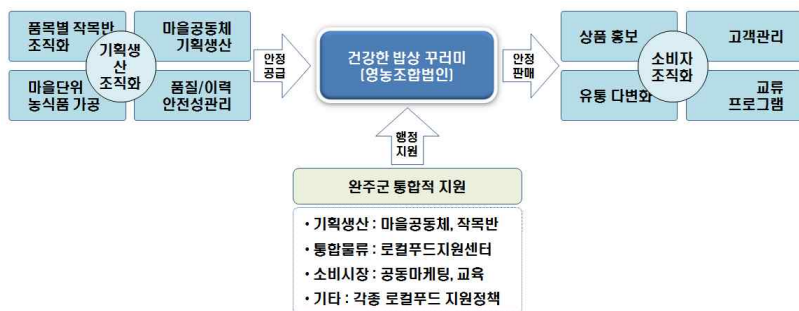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는 생산자-소비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소량 다품목 기획생산 및 소규모 농산가공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실천하는 사례이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다품목 소량생산의 지역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마을회사, 두레농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소농, 가족농, 고령농 등이 참여하여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마을회사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건강밥상꾸러미는 지역의 농업 생산자와 도시권(전주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사회지원농업(CSA)의 구체적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밥상꾸러미는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이 사업추진 주체로 2010년 10월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군 차원에서 전개해온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인 리더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직으로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발전하고 있다. 소비자 회원만 1천명을 확보하고, 82개 마을, 209농가가 참여하여 800톤 규모(2011. 11 현재)로 확대되어 월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림 7〉 완주군 건강한 밥상의 생산-유통-지원구조



* 자료 : 나영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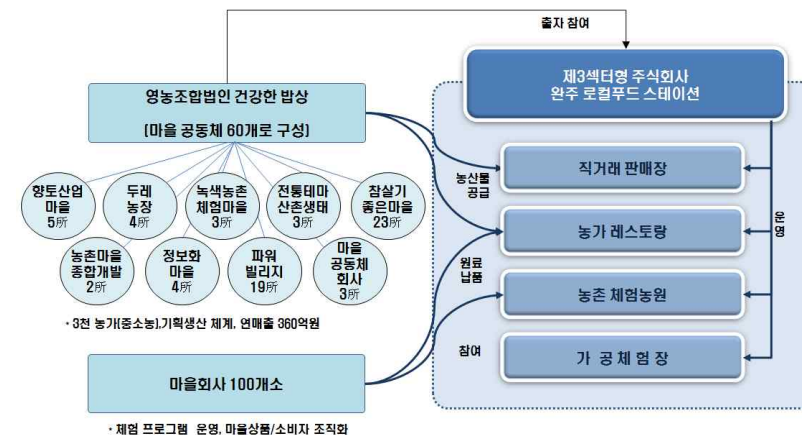
건강밥상꾸러미는 마을공동체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작목반)을 기초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개별 생산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납품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전략상품(유정란, 두부, 콩나물 등)은 마을 및 작목반의 공동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품목 구성과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 사업단 운영을 통해 연중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확보를 위해 마을 팸투어, 직거래 장터 체험행사,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현재는 마을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 내고 가공 및 체험의 장을 넓히기 위해 제3섹터 방식의 '(가칭)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는 개별 생산자와 마을이 연계된 계약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가공까지 결합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6차 산업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8〉 완주군 건강한 밥상의 6차 산업화 실천 모형



4. 6차 산업화의 실천 과정 - 전복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6차 산업화는 농업·농촌 부문이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담당하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류되는 '농업·농촌으로부터의 계열화'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또는 지역산업을 재생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전라북도의 4가지 사례는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농촌 중심의 6차 산업화를 실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가? 이에 전라북도 6차 산업화 실천사례를 몇 가지 단계¹⁶⁾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16) 小林元(2011)는 일본의 지역산업 활성화 사례를 크게 '계획만들기, 출구만들기, 거점만들기' 등으

자 한다.

먼저 진안군 와룡마을은 용담댐 수몰 이후 침체된 마을의 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규모 가공을 매개로 마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갔다. 그리고 군 차원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외부의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가공시설을 만들고 소비자와의 교류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판매-교류의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안정적 활동을 위해 마을 주민이 참가한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화하였다. 체험시설과 상설판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임실군 치즈마을은 오랜 시행착오의 패배감을 마을 리더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전망모색을 통해 마을 활성화가 도모되었다. 친환경 쌀 작목반이 기초조직이 되어 도농교류를 매개로 마을 주민의 참여가 이어졌다. 주민이 가진 인적역량을 살려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이라는 2가지 트랙으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발생한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체험시설은 상시적인 소비자 교류의 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재투자하고 있다.

진안군 마을주식회사는 10여년간의 마을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한계(판매 등)를 군 단위로 극복해 보고자하는 시도이다.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 조직의 오랜 예비적 과정을 바탕으로 조직(주식회사)을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마을과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면서 직접 농특산물의 판매혁신을 실천하는 주체이다. 지역 내부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 외의 소비자를 조직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특산물 상설매장과 로컬푸드 식당 등은 마을과 생산자 조직이 지역주민과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거점이 된다.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는 몇몇 품목으로 특성화하기 어려운 중산간 지역농업의 여건을 소량 다품목 농업생산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소농·고령농·가족농 등)가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의 창출은 물론 농업·농촌을 유지해 나가는 순기능은 매우 크다. 농산물 꾸러미를 매개로 소비자를 직접 조직화하는 거래는 로컬푸드 실현의 대표적 형태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제는 생산-가공-체험-교류의 거점(로컬푸드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할 태세이다.

이상의 4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6차 산업화 실천과정은 크게 6개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①문제에 대응한 과제의 발상, ②활성화 방향의 설정, ③조직만들기, ④상품 및 판로만들기, ⑤거점만들기, ⑥지역사

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회로의 확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실천과정의 단계로 사례를 특징화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 2〉 전북사례로 본 농업·농촌 6차 산업화의 실천과정

구 분	와룡마을	치즈마을	진안마을회사	건강밥상꾸러미
①과제발상	용담댐 수몰 마을의 침체	생산조직 실패 마을의 침체	마을사업의 한계 농산물 판매한계	중산지역 한계 소농, 고령화
②방향설정	지역농산물의 가공판매	치즈의 농촌체험과의 결합	로컬푸드와 농특산물 판매혁신	소비자 연계의 꾸러미 로컬푸드
③조직만들기	좋은 동네	치즈마을운영위	진안마을회사	로컬푸드영농조합
④상품 및 판로만들기	농산가공품 고정방문객 확보	체험과 유가공품 체험방문자	마을 농특산물 지역내외 소비자	농산물 꾸러미 소비자 조직화
⑤거점만들기	상설매장 체험시설	체험시설 농가레스토랑	상설매장 로컬푸드식당	로컬푸드스테이션
⑥지역사회로 확장	-	지역발전기금 조성	군단위 생산-소비구조 조직화	군단위 생산-소비 조직화

사례 모두 ‘문제대응과 과제발상, 활성화 방향설정’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자원조달보다 주민 스스로의 주도성이 발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만들기’에 있어서도 개별 농가중심이 아니라 여성과 고령자 등 다양한 생산자가 서로 협업하고 참여하고 있다.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리더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참여와 사업을 통해 조직의 틀을 갖춰가는 과정은 다양한 주민(생산자)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은 ‘상품 만들기’로 이어져, 팔리기 위한 상품 만들기에 집착하기보다 지역여건과 자원을 점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다품목 소량생산)에서 실천하고 있다. 소규모의 고령자가 할 수 있는 노동력의 범위에서 협업하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구조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지역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상품의 판로’는 사례 모두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교류와 대면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의 소비시장을 직접 조직화하여 지역순환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로컬푸드의 노력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판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판매와 교류의 중심이 되는 시설이 거점화된다. 그래서 농산물 직매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업체험장

등과 거점은 농촌지역의 경제적 결절기능과 사회적 결절기능¹⁷⁾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가지 사례 모두 지역사회에 근거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6차 산업화를 실천하고 있다. 6차 산업화로 만들어진 경제적 이익은 지역주민에게 환원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어 이러한 실천이 '지역사회로의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는 2차와 3차 산업에 빼앗긴 농업·농촌의 몫(가치)을 되찾아 오자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보다 적극적인 혁신 과정의 필요함이 강조된다. 새로운 시장과 수요의 창출을 위한 생산계획·생산과정·판매전략의 혁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6차 산업화는 지역의 기간 산업으로서 그 위치를 명확히 하고, 생산자로부터 출발하는 지역적 관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이 발전 없는 성장이 되어 왔듯이, 지역 외의 자본(2차, 3차)이 주도하는 농상공 연계 등의 6차 산업화는 농업·농촌 부문을 원료 공급자 혹은 농업 노동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6차 산업화를 위한 혁신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그 주체가 어떻게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적 역량이 중요하며, 함께 연계·연대하여 계열화와 하청화되지 않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과제가 놓여져 있다.

한편 우리의 6차 산업화 논의는 농산가공과 판매라는 산업적 관점에 경사된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업 비즈니스와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6차 산업화의 유형을 대별해 보았는데, 이 역시 현장의 실천과정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뤄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싶다.

6차 산업화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분석한 전라북도의 4가지 사례는 농업·농촌 부문이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담당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사례이다. 모든 사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과제의 발상→방향설정→조직

만들기→상품·판로만들기→거점만들기→지역사회로 확장'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구성과 상품을 만드는데 있어 감당할 수준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의 특징은 '과도하게 달려들어' 그 성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여타의 사례에 견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6차 산업화 실천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6차 산업화가 목적하는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6차 산업화가 강조하는 혁신의 과정을 담당할 경영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가공→판매⇒고객'이라는 가치사슬을 엮어낼 담당자이다. 전북의 활성화 사례에서는 내부 리더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 6차 산업화를 지원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내적 자원의 한계는 적절한 외부 자본의 활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사업과 주체의 연계를 추진하고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 넷째, 6차 산업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투자의 지원이다¹⁸⁾.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논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정책화·제도화한 사례임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나 자금의 조달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 내 기존 주체(협동조합)와 사회 인프라 활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17) 경제적 결절기능은 주로 상품 교환관계의 장으로서 생산자(지역주민)에 의한 판로의 거점이며, 소비자에게는 구매의 거점이 된다. 사회적 결절기능은 생산과 소비의 매개가 보이는 공감과 교류의 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小林元(2011) 참조.

18) 전라북도는 일본 오야마 농협, 슈슈농원, 모쿠모쿠 농장 등 6차 산업화 실천사례의 벤치마킹과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자체적인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한다. 생산자-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거래가 농가에 소득으로 환원되고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차별화된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목적이다. 기존의 마을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역량이 구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핵심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2011)를 참조.

참 고 문 헌

- 高橋正郎(1985), 「むらの挑戦ー地域産業活性化戦略」, 家の光協会.
- 今村奈良臣(2010), 「農業の6次産業化の路線提起の歴史を問う」, JA総合研究所 Web サイト.
- 今村奈良臣(1998), 「地域に活力を生む, 農業の6次産業化ーパワーアップする農業・農村」, 21世紀村づくり塾.
- 吉田成雄(2010), 「農業の6次産業化の先端から見えるもの」, 『JA総研レポート』, JA総合研究所.
- 経済産業省(2010), 「農商工連携の推進」.
- 農林水産省(2011), 「6次産業化の生産性向上に係る調査報告書」.
- 農林水産省(2011), 「6次産業化の取組 事例集」.
- 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2008), 「農商工連携 88選 事例一覧」.
- 生源寺眞一(2006), 『現代日本の農政改革』, 東京大学出版会.
- 小林元(2011), 「新しい地域産業の形成プロセス」, 『農山村再生の実践』, 農文協.
- 小林元(2009), 「農商工連携と農業の6次産業化を考える」, 『JA経営実務』, 全国協同出版社.
- 小田切徳美(2010), 「JA人づくり研究会 報告資料」, JA全中.
- 小田切徳美, 『農山村再生の課題』, JA共済総研セミナー 講演録, 2008.
- 槇平龍宏, 「地域農業・農村の‘6次産業化’とその新展開」, 『農山村再生の実践』, 農文協, 2011.
- 구자인 외(2010),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경험』,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 나영삼(2011),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 생명자원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라북도(2011),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설명자료」.
- 전북발전연구원(2011),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 Issue Briefing 42.
- 황영모(2011), 「지역농업이 가는 길 : 농업생산자 조직화 사례」, GS&J인스티튜트.